

글로벌 뉴스 Zoom In

‘사회적기업의 날’ 을 기념하며 시작한 7월. 더욱 의미 있는 한 달이었던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주요 소식들을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 **글로벌 동향**

UN 총회,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선언



UN 총회가 6월 19일 회의에서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ICY2025)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25년의 주제는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한다’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글로벌 임팩트를 조명하고 협동조합 모델이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UN 총회는 결의안에서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UN 회원국들과 UN 산하 기구, 관련 조직에게 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활용하여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적극 알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회원국에게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관련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4 ICA 글로벌 컨퍼런스 및 총회(11.25~30)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에서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선포식도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원문 출처 보기](#)

UNTFSSSE, 48차 정례회의 개최

지난 6월 20일 UNTFSSSE가 4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기구와 옵서버 기구 대표 31명이 참석한 48차 회의는 ①파트너십과 협력 활동 강화, ②UN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 ③개발 의제 안에서 사회연대경제 주류화라는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WHO의 Faten Ben Abdelaziz 박사가 참석하여 웰빙 경제 관련 WHO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 지식 브리프 작성 등 UNTFSSSE와의 향후 협력 활동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작년 UN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이후, 후속 활동 중 하나인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도 공유가 되었는데요. 14개 UN 회원국 정부, 6개 국제 비정부 기구, 2개 정부간 기구와 1개의 개발은행으로부터 피드백과 각국의 관련 동향을 받아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포용적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회복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 결의안 채택 이후, 법/정책/제도적 기틀과 교육, 연구, 금융과 비금융 지원 서비스 및 통계적 가시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그동안 달성한 성과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UN 총회가 집중해야 하는 권고사항들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향후 개최될 국제 컨퍼런스와 서밋 관련 계획 등 UNTFSSSE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 [원문 출처 보기](#)

EU, "사회적경제 전략" 홈페이지 공개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유럽집행위는 23년 6월 사회적경제 프레임워크 환경 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위한 제안 (proposal)을 채택하였고 이후, 본 권고가 23년 11월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전문보기]

통해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사회적경제를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전략을 기획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관련해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담은 사회적경제 전략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집행위의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전략의 개요와 함께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전략을 수립한 국가 현황, 추가적인 관련 자료(워크숍 발제 자료, OECD 정책 안내서 등)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활동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기에 유용한 참고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 [원문 출처 보기](#)

□ **행사 및 보고서 발간 소식**

행사 Mark your calendar!

- **FEBEA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annual conference**
유럽 윤리은행 연합회(FEBEA)* 연례 컨퍼

런스가 9월 27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됩니다. 윤리적 금융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급변하는 사회 및 정치적 상황 관련해 윤리적 금융이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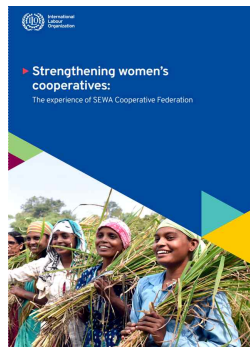
- 행사명: FEBEA Annual Conference
- 일시: 2024년 9월 27일
- 장소: 아일랜드, 더블린
- 주제: Strength in Unity

* 2001년 브뤼셀에서 창립. 유럽 17개 국가의 22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창립 목적은 유럽의 윤리적/사회적 금융 발전.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와 유럽 시민 및 단체를 지원.

▶ [원문 출처 보기](#)

보고서 Be the first to read!

- **Strengthening women's cooperatives: The experience of SEWA Cooperative Federation**



ILO가 인도 자영여성 협회(SEWA,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와 함께 보고서 「Strengthening women's cooperatives: The experience of SEWA Cooperative Federation (여성

협동조합 강화: SEWA 협동조합 연합회의 경험)」을 발간했습니다. 발간 목적은 SEWA 협동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있어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과제들을 탐구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에는 관련 연구와 보고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과의 심층 인터뷰도 담겨 있는데요. SEWA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성 협동조합과 집단적 기업(collective enterprises)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있어 SEWA 협동조합 연합회가 겪는 어려움을 다룹니다. 또한 금융, 보험, 육아, 유기농업, 헬스케어,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SEWA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거나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와 교훈을 제시합니다.

▶ [원문 출처 보기](#)

- Study on State aid for access to finance for social enterprises and for the recruitment of disadvantaged workers in the form of wage subsidies



유럽집행위원회가 진행한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 및 임금 보조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국가보조에 관한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채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일반적용면제규정(GBER,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적용과 영향을 탐구합니다. 연구 결과, 정부 당국은 GBER이 복잡하고 국가보조(State Aid) 규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다는 점 등의 이유로 GBER보다는 다른 금융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규제 환경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금융 접근성에 많은 장벽을 마주하

는데요. 이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State aid)에 의지하지만, 이는 기업의 성장에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에 대한 국가보조 규정 특히, 연령 제한과 민간 투자 요건 관련 규정도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 규정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활동에 반드시 절차 간소화와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원문 출처 보기](#)

- Buy Social Corporate Challenge Year 8



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Social Enterprise UK)의 바이 소셜 기업 챌린지(Buy Social Corporate Challenge)가 햇수로 9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 소셜 기업 챌린지는 사회적 조달

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활동으로 대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출범 이후, 전 부문에서 30개 주요 기업 파트너들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4억 7,700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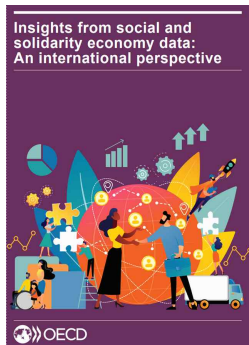
챌린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민간기업이 주요 사업비로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이들 기업과 협업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가장 성공적인 해로, 기업 파트너들이 사회적기업 공급업체에 1억 2,300만 파운드를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차 보고서는 사회적 조달의 혁신적 임팩트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원문 출처 보기](#)

- **Insights from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data: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지난 3월 개최된 제84차 OECD LEED 회의에서 승인된 보고서 「Navigat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의 최종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이 새롭게 바뀌고 내

용도 더 보강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공공 정책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수집은 사회연대경제의 영향력과 사회연대경제가 경제 전반에 하는 기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직들이 새로운 고객, 시장, 금융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OECD는 34개국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사회연대경제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country fact sheet를 발표해 각국의 공식적인 정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규모와 수, 고용 형태, 활동 분야, 경제 기여도, 관련 법체계와 사회적 임팩트 이니셔티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본 보고서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내에서

이들 국가 간 유사점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인사이트와 동향을 제시합니다.

▶ [원문 출처 보기](#)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